

COLLECTIVE TALK

컬렉티브 토크

2024. 7. 26
17.30 PM.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컬렉티브 토크'가 시작됐다. AS의 조현아, 마-꿀의 김채영·김현아, nap의 지윤구가 참여하고 nap의 전승혁이 모더레이터로 함께했다. 세 개의 컬렉티브가 모여 개별 컬렉티브의 소개 및 최근 활동, 앞으로의 의제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주고받은 질의응답을 소개한다.

오늘 좌담은 앞서 nap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한 순서대로 nap, AS, 미-끝이 돌아가며 지금까지의 활동을 소개한 후, 시각예술에 초점을 맞춘 콜렉티브 활동을 실행하며 느낀 생각과 소회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먼저 nap의 간략한 소개와, 이 자리를 만든 계기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nap는 2019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전형적인 화이트큐브에서 벗어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황학동에 있는 빈 상가에서 저와 건형이 형이 함께 전시를 열었죠. 2년 정도 공백 후에 찬이 형이랑 대림동 전시를 같이 하게 됐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될 때쯤 친해진 승혁이 형이 대림동 전시 막바지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우리 팀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제도권 전시에서는 다뤄질 만큼 크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방문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자는 게 생겼죠. 동네 주민들이 와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엮여 있는 장소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 뒤에 북촌과 전주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은 전주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요. 그리고 시간상 역순으로 작업을 할 계획이에요.

전주는 제 고향이에요. 20년 동안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요. 전주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도 잃어버리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옥인컬렉티브가 생각이 나네요. 노마드를 하면서 공간 이야기들을 그 시간에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전시를 하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책을 공개 하고나면 내년에 전시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전업을 해서 다음 페이지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nap는 한마디로 떠도는 전시 만드는 팀이에요

요.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서울 사람들에게 서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될까?’, ‘전주에서 전주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떨까?’, ‘어떻게 지역 주민과 소통하게 될까?’ 이런 것이었죠. 가장 최근의 전주 전시에서는 방명록이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름을 적고 가는 것 외에도 각자의 감상들을 남겨 주셨어요. 전주를 살았지만, 타자화해서 내가 자랐던 공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가 이 좌담을 하게 된 계기는 3월 전주 전시 이후에 서로 의욕은 있지만, 이런 콜렉티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네 번의 전시를 해보니까 다른 콜렉티브들과 모여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또 저희는 현장에 가서 그 장소를 기록하는 아카이빙이 중요해서 그간의 활동과 생각을 정리하는 출판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대안적인 전시 아카이브는 원래 역순으로 올라가야지 부담없이 진행되더라고요. 너무 맨 처음부터 시작하면 자료도 많이 없고, 사진이나 글을 남겨놓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되니까요. 나중에 ‘사진을 왜 안 남겨 놓았지?’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최근의 자료부터 하시면 기억도 생생하고 주변에 전시를 본 사람들도 많으니까 의견이나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nap가 고민하고 계시는 예술과 공성, 또는 로컬리티와 미술은 지금 동시대 비엔날레 예술감독들도 힘겹게 리서치해가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같이 작은 콜렉티브들이 전 지역을 포괄하면서 지원 없이 모든 주제를 짚어지려고 하면 더 빠르게 포기하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미-끝은 어떠세요? 미끝도 인원이 여섯 명이니까, 여러 작업실과 공간을 경유하시면서 ‘로컬’의 곳곳을 더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조원아(AS)

김혜영(미-문)

일단 nap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느끼는 지역성이 있을 것이라 봤어요. 그런데 일상의 공간에 외부의 작가가 와서 새롭게 재해석한 이차적인 지역성이 있으면 ‘지역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nap의 전시를 본 사람이라면 전시했던 장소를 지나가면서 ‘저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면서 장소를 되돌아볼 것 같아요.

지윤구(nap)

그렇죠.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이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실수하고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많이 담으면서 색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주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뷰를 기반으로 전시를 채웠고요. 지금의 주민분들, 실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 스토리, 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앙상블》이었죠.

SNS 같은 채널을 통한 홍보가 부족한 것도 고민이죠. 작가 친구들이 와야 한다면 SNS를 열심히 했을 것 같지만, 동네 사람들이 와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혜영(미-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nap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재해석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외부 사람이 유입되면 오히려 원주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도 있잖아요. 몰래 전시를 열어놓고, 아카이빙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nap의 전략이었겠어요. nap의 전략은 사람들 몰래 전시를 열어놓고 나중에 아카이빙을 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니까, SNS 게시글을 못 보고 전시에 미처 오지 못한 분들은 아쉽겠지만, 원래 1차 관객이었던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와 닿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AS의 소개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승혁(1990)

조란아(AS)

저희는 두 명으로 이루어진 콜렉티브이고, 이력은 다르지만 서구미술 중심적인 제도권 미술 교육을 받았어요. 둘 다 예술학 석사학위를 받기까지 한국 미술사를 함께 배워오긴 했지만 교수님들의 강의나 비평실천이 유럽이나 영미권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배움도 서구중심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또, 저희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지도 교수님 세대가 직면한 문제와 저희가 앞두고 있는 문제가 시대적으로나 주제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내가 살고 있는 아시아의 시각문화도 잘 모르는데, 서양의 것만 익힌다면 동시대 미술이라는 큰 범주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점을 계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판화를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어요. 2020년 1월에 싱가포르에 잠시 머물렀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직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때 내셔널 갤러리 싱가포르에서 구매한 책으로 최근의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현대미술의 지형을 생각할 때, 이제까지 저희가 서구의 비엔날레나 아트페어를 떠올려왔지만, 거대한 대륙과 섬으로 이루어진 아시아에도 다수의 시각예술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애프터 서비스, 애프터스쿨'처럼 저희의 사고를 고쳐가면서 미술사를 재서술하는 실천을 하겠다는 의제로 'AS'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이 명칭은 헤인이 붙여준 것인데, 서양미술사 기준으론 미술사를 배우다 보면 '포스트모더니즘', '탈구조주의', '엘리트주의'의 맥락에서 흘러온 미술현장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면, 그 시절 발생된 아시아 미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격적일 정도로 모르고 있죠. 저희는 6월 전시 《남동아시아 오역하기: 7개의 구멍(Mistranslating Southeast Asia: the Seven

Holes)》의 심볼 이미지로 제가 발리에서 촬영한 야자수 사진을 가져왔어요. 관광지로 소비되면서 반짝 거리는 상품처럼 여겨졌던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고된 역경을 헤쳐온 '남동'의 모습 자체를 내보이고 싶었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소비해온 기간에 비해, 그 안에 농축된 미술과 이론적 실천들은 이제껏 충분히 보지 못했다는 점도요.

AS 활동과 전시의 핵심은 '읽고 쓰기'였어요. 1년 동안 쌓인 스터디의 결과를 내보이는 아카이브 전시에서 1900년 이후 생산된 이미지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연표를 만들어 전시장 벽면에 시각화했어요. 이렇게 연표와 아크릴 조형물을 활용한 전시 디자인은 헤인의 작업이에요. 이렇게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저희가 번역을 한 것인데, 전시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글들이 학계에서는 거의 유통되고 있지 않아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배포를 하고, 그 후 저희와 스터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어쩌면 그것이 AS가 공공성을 생각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PDF 번역 자료를 게재해두신 줄 몰랐어요. 저도 미술사 스터디 그룹에 참여중이어서, 이런 자료를 소중하게 느껴요.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네요.

김혜연(미·판)

(문·미·판·문)

아카이빙을 이렇게 하려면 자료 정리를 하는 데도 정성이 필요하고 여러 기억을 떠올리는 데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듣고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지영구(1990)

미-끝은 어떻게 책만들기를 시작하게 됐나요?

김혜영(미-콜)

미-꿀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가 계기였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다니고 휴학을 한 상태였는데, 당시에는 미술을 접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전시회가 대표적인데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전공자가 이런데 비전공자는 또 얼마나 멀게 느낄까 싶어서 부담없이 미술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무가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라 바로 (김)현아 소현에게 전화로 무가지 출판을 목표로 하는 콜렉티브를 제안했어요. 이후 디자이너 2명, 필진 1명을 더 모셔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가지부터 단행본과 북페어까지, 프로젝트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언젠가 또 만나요” 하면서 심을 가졌는데 어떻게 최근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네요.

미-꿀까지 오늘 모인 콜렉티브들의 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서로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승혁(nap)

조현아(AS)

출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 공감이 됐어요. 실제로는 바쁘게 돌아가는 미술계를 따로 또 같이 따라잡기 바쁘지만, 그 안에서 더 들여다 보아야 할 주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헤인과 아이디어를 나누게 되죠.

미-꿀은 작업물이 상당한데, 전시로 보여주기에 대한 갈증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지윤규(nap)

김혜영(미-콜)

전시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가 아니다 보니 필요를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시간과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이 전시인데 미-꿀에게 전시라는 포맷은 애매해요. 출판물들을 늘어놓기가 떠오를 수 있지만, 미꿀에게는 다른 의미 있는 방식들이 또 있으니까요.

김혜영(미-콜)

조현아(AS)

저희도 처음에는 전시를 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시를 거쳐서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콜렉티브의 의미를 다질 수 있었어요. 흔히 전시에는 작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아카이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두었어요. 사실 미술을 보여주는 형식으로서의 ‘읽고 쓰기’는 항상 있어왔고, 유구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지면과 웹, 그래픽으로만 전시를 제시하게 되면서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에 대한 고민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대안적인 전시나 지식생산을 중시했던 기관들은 온라인 퍼블리싱, 줌 스터디처럼 함께 읽고 쓰면서 배우는 공간의 정의를 넓게 상정하게 되었어요. 그런 흐름을 지나면서 자료중심적인 미술 전시에 대한 수용성도 넓어진 것 같아요. AS도 지난 몇 년간의 추세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 결국 아카이브 전시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봐요.

제가 하고 있는 개인 작업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 전시가 아니어도 온라인 등 여러가지라고 생각하느 편이에요.

김혜영(미-콜)

김혜영(미-콜)

미-꿀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미-꿀은 저에게 글과 책을 만드는 목적을 해소하는 창이에요. 개인 작업을 보여주는 전시와 필진으로 참여하는 미-꿀은 구별하는 편이죠.

맞아요. nap도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시로 풀어내는 사례가 많이 없으니까, 내적으로는 답답해서 스스로 해보겠다고 결심했죠. 자아실현과 같은 이치예요.

지윤규(nap)

조원아(S)

AS도 올해 10월에 노마드를 합니다.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했던 일본을 거치지 않고 동남아 미술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일본에 가서 자료를 보기로 했어요. 구글시트에 일정을 정리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메일과 줌으로 소통하면서 스터디 투어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미-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와는 달리 하나의 콜렉티브에서 출판한 책에서 환경, 로컬리티, 퀴어, 소수자성 등 다양한 주제를 한 번에 다루었다는 점이 신기했고, 어떻게 다양한 주제로 관심사가 뻗어 나가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미-끝의 출판물에서 지금 현장에 살아 움직이는 작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을 만나서 흥미롭기도 했고요.

구성원들의 관심사 위주로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관심 있고 잘 아는 주제가 다른 팀원에게는 낯설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쉽게 풀어쓰는 글이 나왔어요. 문화예술 비전공자에게도 읽히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채영(미-끝)

자용구(nap)

팀원이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고, 다양한 범주를 다루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미-끝은 책 만들기를 시작할 때 6명이 다 같이 기획 회의를 해요.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주제가 정해지면 각자의 맥락에서 글을 쓰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사회적 이슈에 따라 관심사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시의성 있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김채영(미-끝)

(SV)이은조

미술 현장에서 작품을 만드시면서 자력의 출판은 진짜 대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보면서 현장에서 작업과 출판을 병행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여러 갈래로 읽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겠네요. 여기에도 깊은 눈물이 배어 있을 것 같아요.

열정페이로 넘어 무엇인가를 갈아 넣은 수준이죠. nap는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인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김채영(미-끝)

자용구(nap)

인원수나 구성원이 누구인지보다는 nap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저희에게는 중요해요. 각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젝트를 확산해 나가는 방식도 꿈꾸고 있고요.

AS의 경우는 두 명이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프로젝트를 해가고 있어요. 구력이 있는 콜렉티브들은 다른 인원을 수용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지향점을 일치시키는 게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 저희는 또렷하게 서로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콜렉티브의 일원을 염두에 두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조원아(AS)

김채영(미-끝)

지금 미-끝은 적당한 인원이 배치돼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인원에서 더 늘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렇게 출판 콜렉티브를 만나뵙게 되어서 기뻐요. 저희도 곧 책을 낼 예정이거든요. 303페이지 정도의 볼륨으로 출판하신 이유도 좀 더 듣고싶어요.

조원아(AS)

김채영(미-끝)

가제본을 뽑아보고 모자라다 싶으면 글과 그래픽을 더 넣어야 할 정도로, 볼륨 자체가 맥락이었어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정체성을 스펙트럼으로 시각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책 배면에 그라데이션을 넣는 디자인이 채택됐어요. 그러려면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했죠. 그렇지만 무거우면 안 되니까 장수에 비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 언코티드 종이를 사용했고, 전면 인쇄되는 지면은 가장자리를 불려처리해서 염색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여러모로 신경을 썼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능했어요.

각자 최종적인 꿈이 있나요?

자문구(nap)

김혜민(미-판)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있어요. 끝나고 나서, 만날 때마다 관심사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했던 무가지로 돌아가고 싶어요. 구성원들과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다시 가벼운 형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이었던 그때와 지금이 멀어져 있어서 더욱 그런 걸 수도 있죠.

늘 새로 해보는 게 재미있죠. 회의하고 기획하고. 그 순간순간이 전부. 만나서 이야기하고, 거창하지 않게요.

김현아(미-컬)

전승혁(nap)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꿈이죠.

저희도 선배들이 생산해낸 결과를 배워가는 것을 또 다른 AS의 또 다른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광주도 가고 일본도 가보려고 준비중이에요. 유사한 연구를 미리 하신 분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얘기 듣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후세대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직접 겪지 않은 것'을 후술하고, 선행연구 사이의 구멍들을 보완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땀질할 할 방식으로 경청하기를 실천해보려고 연구자들을 한 명씩 초청해서 담화를 나누는 '티타임'을 시작하려고 해요.

조원아(AS)

자문구(nap)

지역 연구를 할 때 모든 것을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nap가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잘 다뤄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희 역시 역사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싶다는 바람을 갖게 됐거든요. 물론 미술사 공부가 사회를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제 태어난 세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시각문화를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서구 중심적 이미지를 선망하거나 동경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로컬'에서 개별의 얘기를 만들어간 선례를 어른들이 미리 제안해주면 어린 세대는 저희 보다는 나은 시각적, 정서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도, 저런 전시도, 다른 출판물도 있어'라고 참고할 점을 더 많이, 더 오래 말해줄 수 있도록 연대책임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각 콜렉티브의 건승을 빕니다.

조원아(AS)

COLLECTIVE TALK

2024. 7. 26
17.30 PM.

On Friday, July 26, 2024, at 7:30 PM, the "Collective Talk" roundtable discussion began. Participants included Jo Hyunah from AS, Kim Chaeyoung and Kim Hyunah from Mi-Kkeul, and Ji Yungu from nap, with Jeon Seunghyuk from nap moderating. The three collectives came together to introduce their individual projects, discuss their recent activities, and share thoughts on their future agendas. This section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iscussions and the questions and answers exchanged.

Jeon
Seunghyuk
(nap)

Today's discussion will follow the order of the individual interviews nap conducted with each collective. We'll start with introductions of nap, AS, and Mi-Kkeul, summarizing our activities so far. We'll then share our thoughts and reflections on executing collective activities focused on visual arts. Feel free to ask each other questions at any time. I'll begin with a brief introduction to nap and the reason for organizing this roundtable.

Ji Yungu
(nap)

nap was first established in 2019. The idea stemmed from a desire to break away from the typical white cube gallery space. We started with an exhibition in an empty store in Hwanghak-dong, which I organized with Geonhyung. After a two-year hiatus, Chan joined us for an exhibition in Daerim-dong. Around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Seunghyuk, who had become a close friend, joined the team during the tail end of the Daerim-dong exhibition. This is when we began to solidify our identity as a group. We decided to focus on telling stories that might not be large enough for institutional exhibitions—stories tied to the places we visit. We hoped that the local residents would come and enjoy our exhibitions, as we wanted to emphasize the narratives connected to the locations.

After that, we held exhibitions in Bukchon and Jeonju. The book we're currently working on is entirely about Jeonju, and we plan to proceed in reverse chronological order in terms of time. Jeonju is my hometown where I lived for 20 years before moving to Seoul. Both in Jeonju and in Seoul where I currently live, there are stories that are gradually being lost. This reminds me of Okindong

Collective
Talk

Collective. While practicing a nomadic lifestyle, we create exhibitions that allow the stories of spaces to emerge in their own time. After we release the book we're working on, I think our exhibitions will change significantly next year. We hope to level up and explore the next phase. In short, nap is a team that creates wandering exhibitions. Our biggest concern has been, "Can we bring meaning to the local people by showing them stories about their own area?" and "What does it mean to talk about Seoul in Seoul, or Jeonju in Jeonju?" Our most recent exhibition in Jeonju provided some valuable insights through the guestbook entries. Beyond just signing their names, visitors left their personal reflections. As someone who grew up in Jeonju, it was refreshing to see my hometown through the perspectives of others, which allowed me to experience a sense of detachment from the familiar.

The reason we decided to organize this roundtable is that after our March exhibition in Jeonju, we began to question "How should we operate this collective moving forward?" After holding four exhibitions, we felt a strong desire to connect and communicate with other collectives. Additionally, fieldwork and archiving—the act of recording the spaces we visit—are very important to us, so we wanted to weave together our activities and reflections through publication.

Yes, starting an archival project in reverse chronological order makes it easier and less overwhelming. If you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you often don't have many materials, and you end up regretting not leaving behind more photos or written notes. But if you start with the most recent, the memories are fresh,

Jo Hyunah
(AS)

and you can easily gather opinions and materials from people who saw the exhibition. Also, the themes nap is grappling with—art and publicness, or locality and art—are topics that even contemporary biennale curators struggle to research. So, when small collectives like ours try to tackle all these topics without support, it often leads to quicker burnout. What about Mi-Kkeul? Since you have six members, I imagine you've explored "local" areas more thoroughly through your various studios and spaces.

Kim
Chaeyoung
(Mi-Kkeul)

When I first heard about nap's work, I thought that the people living in those areas would have their own primary sense of locality. But when an external artist comes in and reinterprets that space, it introduces a secondary sense of locality. This could lead locals to think, "Oh, that's an interesting way to see this place." If someone who saw nap's exhibition passes by the location later, they might remember the story that was shared.

Collective
Talk

That's true. On the other hand, there's the risk that locals might feel uncomfortable with our reinterpretation. We worried about making mistakes or missteps. In the past, our exhibitions were very much centered around our voice and message, giving them a strong character. But for the recent Jeonju project, we focused on filling the exhibition with interviews. We tried to balance the stories of current residents, the real-time ecosystem, and our own narratives. That's why the exhibition was titled Ensemble. We've also been thinking about the

Ji Yungu
(nap)

lack of promotion on channels like SNS. If we wanted artist friends to come, we'd be active on social media, but since we wanted locals to visit, we thought a different approach might be better.

Kim
Chaeyoung
(Mi-Kken)

Hearing this, I can really sense nap's sincerity. There are cases where when something gets reinterpreted and new people come in, the original residents feel stressed. But nap's strategy of holding the exhibition quietly and then archiving it for later might actually resonate more with the local audience. While those who missed the exhibition might feel disappointed, the original audience—the local residents—might connect more deeply with the work.

Thank you for sharing your thoughts. Next, let's hear from AS about your work and journey.

Jeon
Saunghyuk
(nap)

Jo
Hyunah
(AS)

AS is a two-person collective. Although our backgrounds differ, we both received institutional art education that was heavily centered on Western art history. Even though we studied Korean art history up to our master's degrees, we were fully aware that the education and criticism we received were predominantly Euro-American-centric. We also realized that the challenges our professors faced we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we were encountering, both in terms of the time period and the subject matter. We often wondered, "How can we grasp the broader context of contemporary art if we don't even understand the visual

culture of Asia while only learning about the West?"

This led me to write my master's thesis on Singaporean printmaking. In January 2020, I spent some time in Singapore and returned to Korea just before the COVID-19 pandemic began. We recently conducted a study using a book I purchased at the National Gallery Singapore. When we think about the geography of contemporary art, we tend to think of Western biennales and art fairs, but Asia, with its vast continents and islands, has had its own rich visual art movements. This realization led us to form AS with the aim of rethinking and re-writing art history, much like an "after service" or "after school" for our minds. Hyein came up with the name, and it reflects our intention to revise our understanding, moving away from the dominant Euro-American perspective that we've been taught, where concepts like post-modernism, deconstruction, and elitism are common but Asian art from the same periods remains largely unknown.

For our June exhibition, *Mistranslating Southeast Asia: The Seven Holes*, we used a photo of a palm tree I took in Bali as the symbol. Rather than presenting Southeast Asia as a shiny product to be consumed as a tourist destination, we wanted to show the struggles and resilience of the "South-East." Compared to the long period during which we've consumed Southeast Asia, we haven't fully seen the art and theoretical practices that have emerged from within. The core of AS's activities and exhibitions has been "reading and

writing.” In our archival exhibition, we visualized a timeline on the gallery walls based on the images and historical facts produced after 1900. The exhibition design, using this timeline and acrylic sculptures, was Hyein’s work. The materials in the exhibition were translated by us, and they’re available as free PDFs on our exhibition webpage. Since these texts are rarely circulated in academia, we wanted to increase accessibility by distributing them for free, hoping that others would start studying with us. This might be AS’s way of thinking about publicness.

Kim
Chaeyoung
(Mi-Kkeul)

I didn’t realize you had PDFs of translated materials available. I’m part of an art history study group, so I really value resources like this. I think they’ll be very helpful.

Kim
Hyunah
(Mi-Kkeul)

It must have taken a lot of effort to organize and recall the memories for such thorough archiving. I’m really impressed.

How did Mi-Kkeul get started with making books?

Jeon
Seunghyuk
(nap)

Kim
Chaeyoung
(Mi-Kkeul)

Like AS and nap, Mi-Kkeul was also sparked by the COVID-19 pandemic. I was on a break from university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my third year, and I felt there weren’t enough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art. Exhibitions were the main avenue, but with social distancing in place, it became difficult and costly to attend them. As an art major, I found this challenging, and I wondered how much more alienating it must be for non-majors. That’s

why I planned a free magazine that could easily deliver art news. I tend to act on my interests spontaneously, so I immediately called Hyunah and So-Hyun to propose starting a collective with the goal of publishing a free magazine. We later brought on two designers and one more writer to begin the project. After completing each project, from free magazines to books and book fairs, we’ve taken breaks, saying, “Let’s meet again someday.” Somehow, we’ve managed to keep going until now.

Jeon
Seunghyuk
(nap)

Now that we’ve heard the introductions from each collective, feel free to ask each other any questions or share your thoughts.

Jo
Hyunah
(AS)

Hearing Mi-Kkeul’s story, I really resonate with the idea of working project by project. We’re often busy trying to keep up with the fast-paced art world, but when a topic emerges that needs more attention, Hyein and I naturally start sharing ideas.

Ji
Yungu
(nap)

Mi-Kkeul has produced a substantial body of work. Do you ever feel the urge to present your work in an exhibition format?

Kim
Hyunah
(Mi-Kkeul)

Since our projects aren’t designed with exhibitions in mind, I’ve never really felt the need for it.

Kim
Chaeyoung
(Mi-Kkeul)

Exactly. Exhibitions take time and effort, but the exhibition format doesn’t quite fit with what Mi-Kkeul is doing. While it might make sense to lay out our publications in an exhibition, there are other meaningful ways for Mi-Kkeul to present our work.

Jo Hyunah
(AS)

We didn't initially plan to hold exhibitions either. Bu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organizing an exhibition helped us consolidate our studies and reinforce the meaning of our collective. People often think exhibitions need to feature artworks, but we focused more on creating a space to discuss archival materials. Reading and writing as a form of art has always existed; it's a long-standing strategy. Howeve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en exhibitions were mostly limited to print and online formats, there was a surge in discussions about practical spaces for accessing art. Institutions that prioritized alternative exhibitions or knowledge production expanded their definitions of learning spaces through online publishing and Zoom study sessions. I think this trend has increased acceptance of archive-centered art exhibitions. AS was certainly influenced by this trend in recent years, which led us to hold an archival exhibition.

In my own practice, I also think there are many ways to present work beyond physical exhibitions, including online formats.

Kim Hyunah
(Mi-Kkeul)Kim Chaeyoung
(Mi-Kkeul)

For me, Mi-Kkeul is a platform where I fulfill my purpose of writing and making books. I distinguish between the exhibitions where I present my personal work and my participation in Mi-Kkeul as a writer.

That makes sense. There aren't many opportunities to explore a topic through exhibitions, so it can feel stifling. That's why we decided to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it's a form of self-realization.

Ji Yungu
(nap)Jo Hyunah
(AS)

AS will also be embarking on a nomadic project in October this year. We believe you can't discuss Southeast Asian art without acknowledging Japan's role in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o we've decided to go to Japan and examine the archives ourselves. We're currently organizing the schedule on Google Sheets and preparing for the study tour by communicating via email and Zoom. Listening to Mi-Kkeul, I found it fascinating that, unlike us, you've managed to cover a wide range of topics—environment, locality, queerness, minority issues—all within a single collective publication. I'm curious how your interests have expanded to cover such diverse themes. It was also interesting to see how your books address the issues that artists working in the field today find important.

We choose topics based on the interests of our members. Naturally, some topics are familiar to some team members but new to others, which leads to writing that's easy to understand. Since our goal is to make the content accessible to people who aren't art majors, I think this was the right approach.

Kim Chaeyoung
(Mi-Kkeul)Ji Yungu
(nap)

Having members from different fields and covering a broad range of topics is a significant strength.

When we start planning a book, the six of us hold a planning meeting together. Even if the subject isn't someone's area of expertise, once a theme is chosen, everyone writes from their own perspective, which can lead to

Kim Chaeyoung
(Mi-Kkeul)

new ideas. Our topics change with the social issues we discuss during each meeting, so I think that's why we end up with timely themes.

Jo Hyunah
(AS)

I think it's truly impressive that you're producing publications on your own while creating art. Reading Mi-Kkeul's books must be an experience of encountering various perspectives from people working both in the field and in publishing. There must be a lot of emotion poured into them.

It's like we've put more than just passion into these projects.

It seems like nap changes its members for each project. How do you plan to operate moving forward?

Kim
Chaeyoung
(Mi-Kkeul)

Ji Yungu
(nap)

For us, what's important is continuing to work under the name nap, regardless of how many members we have or who they are. We're also dreaming of expanding the project by having each member work in their own space.

For AS, since there are just the two of us, we support and encourage each other as we work on projects. Some more established collectives bring in new members, but it's not easy to align everyone's goals, so we've stayed very focused on each other. That's why we've prioritized public-facing activities while keeping our collective identity clear.

Jo Hyunah
(AS)

Kim
Chaeyoung
(Mi-Kkeul)

I think Mi-Kkeul has just the right number of members right now. Instead of expanding, we want to focus on what we can do with our current team.

I'm thrilled to have met a publishing collective like Mi-Kkeul. We're also planning to publish a book soon. I'd love to hear more about why you chose to produce a 303-page volume.

Jo Hyunah
(AS)

Kim
Chaeyoung
(Mi-Kkeul)

We printed a prototype and realized it wasn't enough, so we added more text and graphics. The volume itself was part of the concept. We wanted to visually represent our identity as a collective that covers a broad spectrum of topics, which is why we chose a gradient design for the book's spine. To achieve that, the book needed to be a certain thickness. But we didn't want it to be too heavy, so we used uncoated paper to keep it light despite the number of pages. The pages that are fully printed have blurred edges to make them easier to dye. We paid a lot of attention to these details. It was possible because we're a group of people who love books.

Do you each have a final dream or goal?

Ji Yungu
(nap)

Kim
Chaeyoung
(Mi-Kkeul)

After we finish a project, we don't think about what comes next. When we meet again, our interests have often shifted. There's nothing set in stone. Personally, I sometimes think about going back to the light format of our first magazine. I haven't discussed it with the other members, but I wonder how it would feel to try something simple again. Maybe it's because the beginning feels so far away now.

It's always fun to try something new—to plan and discuss. Those moments are everything. Just meeting up and talking, without making it too grand.

Kim Hyunah
(Mi-Kkeul)

Jeon
Seunghyuk
(nap)

I often think about how our projects can help someone. My dream is to keep working on projects until I find that answer.

We also see learning from the work of our predecessors as another form of AS activity. That's why we're preparing to go to Gwangju and Japan. It's important to seek out those who've done similar research and listen to them. What we can do for future generations is to document what we haven't experienced ourselves and fill in the gaps between previous studies. To that end, we're planning to start a "tea time" series, inviting researchers one by one to share their insights.

Jo Hyunah
(AS)

Ji Yungu
(nap)

When researching a place, we can't cover everything, so we want to focus on the topics nap is best suited to address.

We also hope to contribute, even in a small way, to balancing history. While studying art history might not change society in a big way, I hope that the next generation, now being born, will absorb visual culture from a broader range of perspectives. If older generations suggest more diverse references, the younger ones might grow up with better visual and emotional environments, without idolizing or longing for Western-centric images. We hope to fulfill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by offer-

Jo Hyunah
(AS)

ing more points of reference,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see that there were different people, different exhibitions, and different publications. I wish success to all our collectives.